

사회

광주지역 고교 학생부 조작 '된서리'

시골 노인 울린 '한우사기범'

시교육청, 부당 정정 1400여건 적발 교사·교장 100여명 무더기 징계 위기

고교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를 부당 정정해 적발된 광주지역 교사와 학교장 등이 무더기 징계를 받을 처지에 놓였다.

부당 정정 관련 교사만도 39개 학교 217명에 대해 주의·경고 등 행정처분을 포함해 징계를 받을 교사가 최소 100명선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무더기 징계는 광주지역 교단에서 유례없는 일이며 파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24일 광주시교육청은 전체 고등학교 64개교를 전수조사한 결과 39개교

에서 학생부를 부당하게 고친 사례가 총 1466건에 달했다. 이는 교과부의 학교장 등이 무더기 징계를 받을 처지에 놓였다.

부당 정정 관련 교사만도 39개 학교 217명에 대해 주의·경고 등 행정처분을 포함해 징계를 받을 교사가 최소 100명선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무더기 징계는 광주지역 교단에서 유례없는 일이며 파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24일 광주시교육청은 전체 고등학교 64개교를 전수조사한 결과 39개교

서는 의사로 바꾼 사례 등이다. 증빙서류 없는 독서활동 실적 388건, 긍정적 내용 등을 추가한 행동 발달상황 256건 등이다. 이밖에 봉사활동(149건), 특기사항(67건), 출결상황과 체험학습이 각 3건, 1건 등이다.

광주지역은 다른 시·도 교육청이 표본조사를 한 것과 달리 전수조사를 해 적발건수가 월등히 많다고 광주시교육청 감사관실은 밝혔다. 전남은 28개교에서 255건, 대전과 전북은 13개교와 10개교에서 52건과 157건만이 지적됐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정정 건수가 많은 학교와 그 정도를 감안해 내달 초까지 감사 후속조치를 마무리 할 것"이라며 "교단에 미칠 파장 등이 큰 만큼 신중하게 징계수위와 범위를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8농가서 21마리 매입 소값 3200만원 떼먹어

최근 농수산물 가격 하락 등으로 시름에 잠긴 농촌 노인들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이던 50대가 구속됐다.

최고 농수산물 가격 하락 등으로 시름에 잠긴 농촌 노인들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이던 50대가 구속됐다.

최고 농수산물 가격 하락 등으로 시름에 잠긴 농촌 노인들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이던 50대가 구속됐다.

경찰조사 결과 한우 매입업자인 황씨는 신용불량자로 등록돼 정상적인 거래를 하지 못하게 되자 일반 농가 노인들을 상대로 이 같은 사기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황씨가 범죄 대상으로 한 노인들은 모두 고령으로, 반강제적으로 소를 끌고 갔다"며 "황씨가 계속 출석을 거부, 제법의 우려가 있어 잠복 끝에 검거했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같은 교도소에 수감돼 알게 된 뒤 농촌지역을 돌며 6차례에 걸쳐 2500만원 상당의 고추, 쌀, 귀금속 등을 훔친 박모(34)씨 등 일당 5명을 붙잡아 조사중이다.

/서부취재본부=정은조기자 eichung@

나원침 (7014) 김장동



檢, 화정주공 조합장 영장 재청구키로

검찰이 수뢰 혐의를 받고 있는 화정주공아파트 재건축 조합장 정모(55)씨 등에 대해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광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일권)에 따르면 법원이 정씨와 정비사업체 D사 간부 이모(64)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함에 따라 기각 사유를 분석한 뒤 보완 작업에 착수했다.

법원은 뇌물수수에 대한 법적 다툼의 소지가 있고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판단에 따라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그러나 검찰은 정씨가 D사 측으로부터 비공식적으로 막대한 돈을 받고 그 흔적을 지우기 위해 계

좌세탁 과정을 거쳤으며 허위 문서를 작성하는 등 치밀하게 증거를 인멸하려는 시도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영역비가 높아질 수록 조합원의 부담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조합이 정비업체나 철거업체를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 이 과정에 비리가 개입될 소지가 크며 일부 정비업체는 폭력조직과도 연관이 있는 만큼 철저히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반해 정 조합장은 "검찰이 수년 전 있었던 일을 가지고 무리하게 수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적성맞는 직업 찾는 고교생들 24일 호남대 광산캠퍼스 문화체육관에서 개막된 제3회 산학협력의 날 행사에 참가한 고교생들이 산학협력에 의해 개발된 IT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직업을 찾고 있다. /최한배기자 choi@kwangju.co.kr

"서울 법대가라, 전국 1등 해라" 강요에

高3생, 엄마 살해뒤 8개월간 방치

경찰, 구속영장 신청

더 좋은 성적을 받아오라는 집요한 강요를 견디다 못해 어머니를 살해하고 시신을 썩어 때까지 방치한 고3 우등생이 붙잡혔다. 서울 광진경찰은 24일 모친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고 시신을 내버려둔 혐의(존속살해 및 사체유기)로 고등학교 3학년 A(18)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 3월13일 오전 11시께 광진구의 다세대주택 자택에서 부엌에 놓인 흉기로 어머니 B(51)씨의 목을 찔러 숨지게 한 뒤 8개월간 시신을 숨겨둔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경찰에서 "어머니가 '학부

모 방문의 날'인 다음날 학교에 오기로 돼있었는데 모의 고교사 성적표에 전국 4000등을 한 것을 62등으로 고쳐 놓은 게 들통나면 무서운 처벌을 받게 될까 봐 겁이 났다"고 진술했다.

법원 전담에도 B씨는 62등으로 위조한 성적표를 보고서 "더 잘하라"는 잔소리과 함께 A군을 옹드려 뺨치게 시키고 야구방망이와 골프채로 번갈아가며 10시간에 걸쳐 체벌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평소 어머니 B씨는 A군에게 직업관이나 꿈을 키워주는커녕 "서울대 법대를 가야만 하고, 너 잘되라고 하는 소리", "전국 1등을 해야 한다"는 말을 반복했으며, 아들의 성적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밥을 안주거나 잠을 못자게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어머니에게 혼날 것이 두려워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성적표를 위조해 보여줬던 A군은 고등학교 2학년에 올라와서부터 성적이 조금씩 떨어져 최근 응시한 대학수학능력시험 가제점 결과 3등급 정도의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활달한 성격의 A군은 평소 교우관계가 원만했으며 범행 후에도 친구들을 집으로 불러 라면을 끓여먹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B씨의 등쌀에 5년 전 아버지가 가출한 뒤로 어머니와 단둘이 살게 된 A군은 특별히 반항하거나 주변에 고민을 털어놓은 적도 없었

며, 범행 후 어머니가 계속 꿈에 나왔다가 경찰에서 울며 자백하는 등 죄책감이 시달렸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웃과 친지들이 살해된 B씨의 행방을 물어오면 "어머니도 가출했다"고 둘러대 의심을 피했으며, 시신이 보관된 안방 문틈을 공업용 본드로 밀폐해 냄새가 밖으로 새어나오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B씨와 별거하며 매일 120만원 상당의 생활비를 보내오던 아버지가 1년 만에 집에 들렀다가 A군이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가로막은 점, 안방 문이 본드로 막혀 있는 점 등을 이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해 결국 범행이 드러났다.

/연남뉴스

광주여대 전 도서관장

교비횡령 혐의 영장

광주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이상억)는 24일 교비를 횡령하고 건설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광주여대 전 도서관장 오모(48)씨에 대해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오씨는 지난 2003년부터 올해까지 광주여대에서 근무하면서 교비 15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오씨는 대학 도서관과 본부 신축공사 과정에서 수의계약을 대가로 건설업체 4곳으로부터 모두 20억원 가량을 받아 횡령 혐의도 받고 있다. 오씨는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지난 7월 사직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여대생-여고생 난투극

커피 전문점서 '떠들지 말라' 시비

커피전문점에서 사소한 시비 끝에 서로에게 주먹을 휘두른 여대생과 여고생들이 난란히 경찰서 신세를 졌다.

광주 모 대학교에 재학중인 장모(여·20)씨는 지난 23일 밤 9시께 광주시 서구 화정동 모 커피전문점에서 한가롭게 커피를 즐기고 있었다. 얼마 뒤 이모(16)양 등 10대 3명이 들어와 옆자리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거기까지는 좋았다. 갑자기 이양 일행의 대화 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여대생 장씨는 고등학생들이 공공장소에서 시끄럽게 떠

드는 것이 눈에 거슬렸고, "조용히 해달라"는 말을 건넸다. 하지만, 이양 일행은 장씨의 말을 무시했고, 결국 말다툼으로 번졌다.

장씨는 나이 어린 학생들이 대드는 것에 화가 치밀어 올랐고, 급기야 이양의 머리를 한 차례 쥐어박았다. 맞은 것에 화가 난 이양 일행도 참지않고 장씨에게 주먹을 휘두르기 시작하면서 조용한 커피전문점은 순간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결국, 이들은 출동한 경찰에 의해 난란히 경찰서로 향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한살을 비방' 전 세무공무원 대법, 해임 취소 확정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24일 한살을 전 국제청장을 비방하는 글을 국제청 내부계산에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상 명예훼손)로 기소된 나주세무서 전 직원 김동일(49)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또 김씨가 광주지방국세청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도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2009년 5월 내부계산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에 한살을 국제청장의 책임이 있다. 태광실업에 대해 (특별)세무조사를 한 이유를 밝힐 것"을 요구하는 내용 등의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벌금 70만원을 선고했으나 한소심은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전과 23범 '죽석 만남' 여성집사 절도

○수십번의 전과 경력이 있는 30대 나이트에서 '죽석 만남'을 통해 알게 된 여성의 집에서 금품을 훔쳐 또다시 경찰서행.

○24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절도 등의 혐의로 붙잡힌 김모(37)씨는 지난 20일 밤 11시25분께 광주시 서구 마북동 A(여·41)씨의 집에서 A씨의 외출한 사이 사파이어 세트 등 4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쳤다는 것.

○강도상해 등 전과 23범인 김씨는 최근 나이트에서 '매너남'을 가장해 접근한 뒤 종종 A씨의 집을 드나들었으며, 이날 A씨가 집을 비우자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 금품을 슬쩍.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대학편입 정원 대폭증가!

수능결과를 뒤엎는 또한번의 찬스!!

재수	vs	편입
1학년입학 / 4년재학		3학년입학 / 2년재학
고등교과목 전과목 (약 16과목)		영어(인문) / 영어,수학(자연)
각 군별 1회 지원		대학별 지원(최다 20회 이상 복수지원 가능)

편입합격자 10명중 7명은 김영출신!

김영편입학원

광주동부경찰서 뒤(062)227-8088

www.kimyong.co.kr 개강:12월 19일

2013학년도 대학편입을 위한 초석다지기 과정,편입개론과정 대개강!

편입 1:1 문자상담 : 010-7766-1254

www.kimyong.co.kr 개강:12월 19일